

# 인지적 몰입과 과거사용 그리고 습관이 자동사용에 미치는 영향

## - 페이스북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 응 규\*

<목 차>

- I. 서론
- II. 기존 문헌 연구
  - 1. 습관
  - 2. 인지적 몰입
- III. 가설과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 1. 대상 및 측정도구
  - 2. 분석도구

- V. 자료분석
- VI. 결론
  - 1. 연구요약
  - 2. 이론적 시사점
  - 3. 실무적 시사점
  - 3.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과거 정보기술 수용이론에서는 정보기술 사용을 이성적 행동(rational behaviors)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사용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 의도는 다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에 기반을 둔다(Venkatesh et al, 2000). 그러나 최근의 정보기술의 사용은 이성적 판단을 수반할 만큼 중요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정보기술 사용을 일상적인 행동(routine behavior)으로 생각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이 휴대가 가능한 정보기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은 심사숙고 끝에 사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의사결정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의식적인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현상 즉, 자동사용(automatic use)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Ortiz de Guinea and Markus, 2009). 기존 연구에서는 자동사용의 결정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습관(habits)이다. 습관은 반복과 만족을 조건으로 형성된 일련의 학습된 행동으로 의식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747)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woong3041@empal.com

적인 의도가 아닌 외부 단서(external cues)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이나 최종 상태를 얻기 위해 기능한다(Ouellette and Wood, 1998; Verplanken, 2006; Verplanken and Orbell, 2003). 일반적으로 의도가 초기의 중요한 행위를 결정하는 기제(mechanism)라면 습관은 자동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기제다(Ouellette and Wood, 1998; Triandis, 1980). 정보기술의 경우에도 일단 정보기술의 수용(acceptance)은 이성적 행동이기 때문에 의식적 의도에 따르지만 수용 이후의 지속적 사용은 일종의 일상적 행동이기 때문에 의식적 의도보다는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용규, 2011; Limayem et al., 2007; Polite and Karahanna, 2012).

둘째, 과거 사용 빈도다. 전통적으로 의식적인 의도가 매개되지 않는 사용과 사용의 관계는 습관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Kim 2009; Kim and Malhotra 2005; Kim et al, 2005; Venkatsh et al, 2000). 그러나 사용과 사용의 관계는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많은 정보 기술 사용자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용 의도와 상관없이 오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용한다. 일종의 특정 시스템에 대한 잠김 현상(lock-in)으로 기존 시스템보다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발생할 수 있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s)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이용규와 권정일, 2012).

셋째, 인지적 몰입(cognitive absorption)이다. 인지적 몰입은 소프트웨어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상태(a deep involvement with a software)다(Agarwal and Karahanna, 2000). 가령,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느끼지 못할 만큼 SNS 사용에 깊이 빠진 경험이 대표적인 인지적 몰입이다. 인지적 몰입은 일종의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따라서 인지적 몰입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사용을 자극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SNS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해 봤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해당 SNS를 사용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몰입 역시 의식적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용규, 2012).

본 논문에서는 자동사용 결정요인인 습관, 과거사용 및 인지적 몰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문(research questions)을 제시한다.

#### **연구의문1: 인지적 몰입은 습관을 고려할 경우 자동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비록 의식적 의도의 매개 없이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여도 인지적 몰입의 경험은 정보기술 사용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무의식에 의해 통제되는 자동사용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인지적 몰입 그 자체는 쾌락적(hedonic) 요인과 관련된 감정적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따라서 인지적 몰입과 자동사용 간의 관계는 자동사용을 통제하는 습관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문2: 과거사용 빈도는 습관에 항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습관의 강도는 과거 사용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과거 사용은 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시점에서 측정된 습관의 정도는 그 이전의 과거 사용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Limayem et al., 2007).

그러나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수행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일단 형성된 습관의 효력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Aarts et al., 1998; Ouellette and Wood, 1998).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도 습관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9). 습관이 이미 형성된 사용자의 경우 과거 사용 빈도에 따라 그 습관의 정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사용 빈도가 항상 습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인지적 몰입을 습관과 사용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로 제시하고 이 관계를 2 개월(약 8주)간에 걸쳐 종단적으로 확장한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연구모형은 페이스북(facebook)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기존 문헌 연구

### 1. 습관

정보기술 사용 분야에서 습관에 의한 자동사

용이 주목을 받은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용과 미래 사용의 관계는 시스템 사용 경험과 사용의 관점에서 비교적 오래 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 특히 과거 시스템 사용의 경험이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 태도 또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오래 전부터 중요한 연구 과제였고 비교적 심도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예; Bhattacharjee and Premkumar, 2004; Gefen et al, 2003; Karahanna et al, 1999; Taylor and Todd, 1995; Thompson et al, 1994; Venkatesh and Davis 2000). 이들은 정보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해당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친밀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대해 좀 더 분명한 태도 또는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사용의도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수용이 주 관심사였다(이윤규, 2011).

이에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사용의도와 상관 없는 자동사용의 관점에서 과거 사용과 미래 사용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연구들과 구분된다. 이들 연구들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습관의 척도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Ortiz de Guinea and Markus, 2009). 첫 번째 견해는 과거 사용의 빈도를 습관의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다(Kim 2009; Kim and Malhotra, 2005; Kim et al, 2005; Venkatesh et al, 2000). 이들은 습관이 갖는 ‘자동성’과 ‘학습된 행위’의 두 가지 개념 가운데 ‘학습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과거 행위의 빈도 즉, 습관은 그 행위를

다시 수행할 기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Kim and Malhotra, 2005).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용과 사용의 관계 자체를 습관으로 보고 있다. 반면 습관의 개념을 과거 사용과 함께 자동성의 개념을 중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습관을 단순한 과거 사용 빈도가 아니라 자동성이 포함된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이용규 2011; Guo and Barnes, 2011; Lankton et al 2010, Limayem and Hirt 2003; Limayem et al, 2007; Lin and Wang 2006; Pee et al, 2008).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 가운데 자동성과 학습된 행위 간의 관계 즉, 습관과 과거사용을 미래 사용의 결정변수로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기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동성을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만든 Self-Report Index of Habit(SRHI)는 과거 행위와 미래 행위를 완전히 매개(mediate)하기 때문에 습관의 척도로서 과거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planken,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용과 미래 사용의 관계는 전환비용(switching costs)과 같이 자동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이용규와 권정일, 2012; 이용규와 김효정, 2011; 2013; Kim and Kanakanhalli, 2009; Ray et al, 2012), 따라서 과거 사용과 습관의 강도는 자동사용에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개의 요소일 뿐 아니라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2. 인지적 몰입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지적 몰입은 정보기술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용성(usefulness)이나 사용용이성(ease of use) 또는 사용의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예; Lin, 2009; Roca et al., 2006; Magni et al, 2010; Saade and Bahli, 2005; Wakefield and Qhitten, 2006; Zhang et al, 2006). 즉, 인지적 몰입은 정보기술 사용의 초기 단계인 수용단계에서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아 왔었다(이용규, 2012).

그러나 인지적 몰입과 같은 최적 경험의 수준은 시간이 흐른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몰입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Csikszentmihalyi, 1990). 가령, 처음 페이스북을 사용한 사람이 경험하는 몰입 수준 보다는 오랜 시간 다양한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의 몰입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몰입은 정보기술 수용단계 보다는 지속적 사용 단계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지속적 사용단계는 의식적인 사용 의도 없이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몰입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인지적 몰입이 사용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이용규,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자동사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습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Ⅲ. 가설과 연구모형

습관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학습된 행동들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최종 상태를 얻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이웅규, 2011; Verplanken and Orbell, 2003). 경험이 충분한 사용자라면 정보기술 사용은 이미 일상화된 행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경우 의식적인 의도 없이도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 특히 습관의 정도가 높으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이웅규, 2011; Limayem et al, 200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한다.

가설1: 습관은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비록 기존 연구에서 인지적 몰입이 의식적 의도의 매개 없이도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지만(이웅규, 2012), 인지적 몰입과 사용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인지적 몰입은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계라기보다는 최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따라서 인지적 몰입에서 의식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의식적 행위와 상관없는 습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Triandis(1980)의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위의 수행은 의도와 습관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즉, 초기에는 주로 의도에 의해 주도되지만 행동이 반복되어 일상화될 경우에는 의도보다는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몰입이 정보기술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 정보기술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행

동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에피소드와 같은 내용이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가 기억되는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이다(Kim, 2009; Myers, 2004). 자동사용은 암묵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의식적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적 단서(external cues) 또는 환경적 단서(environmental cues)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이웅규, 2012; Limayem et al, 2007; Ortiz de Guinea and Markus, 2009). 습관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외부적 단서가 이 행동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9).

따라서 습관이 자동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적 몰입이 외부적 단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지적 몰입과 같은 감정적 경험(emotional experience)은 어떤 행동이 자신이 원하던 결과 또는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과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Wood et al., 2002). 가령, 페이스 북 사용에서 인지적 몰입을 경험했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사용시간이 훨씬 빨리 흘렀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이웅규, 2012). 특히 인지적 몰입과 같은 최적 경험은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한다(Csikszentmihlyi, 1990).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몰입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습관에 의한 시스템 사용을 자극할 수 있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인지적 몰입의 경험과 습관은 자동사용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습관의 강도가 높다면 인지적 몰입과 일련의 행동 간의 강도를 높게 할 것이고 인지적 몰입에 대한 경험이 강렬하

다면 습관과 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가설2: 습관과 사용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은 조절효과를 갖는다. 즉, 인지적 몰입의 강도가 높으면 습관이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인지적 몰입의 강도가 낮으면 습관이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사용과 사용의 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 (Kim, 2009; Kim and Malhotra, 2005; Venkatesh et al., 2000). 대부분의 경우 이 관계를 습관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용과 사용의 관계는 반드시 습관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 시스템보다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전환비용 때문에 현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이웅규와 권정일, 2012; 이웅규와 김효정, 2011; 2013; Kim and Kanakanhalli, 2009; Ray et al, 2012). 가령, SNS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들어 가는 귀찮음이나 어려움 등이 전환비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전환비용은 다른 시스템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 해도 기존 시스템만을 계속 사용하는 고착화(lock i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Shapiro and Varian, 1999). 따라서 습관과 상관 없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가설3: 사용은 과거사용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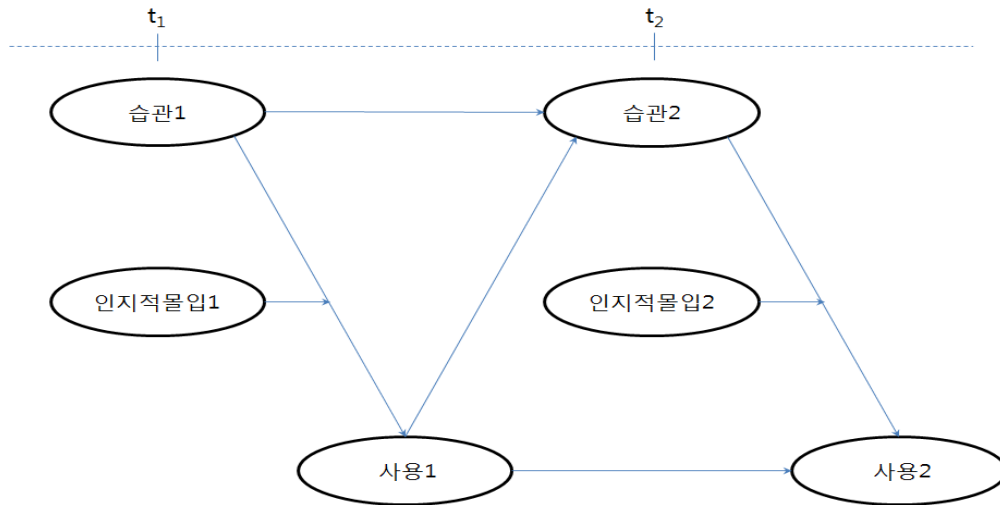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반복적 행위는 상대적

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습관에 의한 일련의 행동들이 암묵적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동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또는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암묵적 기억은 일종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도 습관은 습관 형성 직후는 물론이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다 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9). 즉,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된 습관은 외부의 자극이 있다 하여도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단기적인 반복이 습관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습관의 강도는 습관 그 자체의 영향에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4: 습관은 과거습관에 정(+의 영향을 받는다.

가설5: 사용빈도가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적다.

이제까지 제시한 가설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가설의 성격상 각 변수들은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습관1과 인지적 몰입1은 가장 앞선 시점인 t1, 습관2와 인지적 몰입2는 t2, 그리고 사용1은 t1과 t2 사이, 사용2는 t2과 t3 사이의 사용을 의미한다. 습관과 사용의 관계(가설1) 그리고 습관과 사용 관계에서의 인지적 몰입의 조절효과(가설2)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두 번에 걸쳐 측정하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서도 두 가설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가설1과 가설2의 이론적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려는데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 1. 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의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기술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성격상 사용의 지속성을 갖는 사용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이웅규(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크게 삼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대상자들에게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습관의 정도(습관1)와 페이스북 사용에서 경험한 인지적 몰입(인지적 몰입1)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주 후에 실시하는데 이

때는 다시 한번 습관의 정도(습관2)와 인지적 몰입(인지적 몰입2)을 측정하고 지난 2주 동안의 사용빈도(사용1)를 측정하였다. 세 번째 수집은 첫 번째 수집 2주 후 지난 2주 동안의 사용(사용2)를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대구 소재 정규 대학 수업에 참여하는 17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하되 휴대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에 의해 관리하였다.

설문 척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습관은 Verplancken과 Orbell(2003)이 제시한 SRHI 척도 가운데서 사용빈도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항목을 이용하였다. 인지적 몰입은 Agarwal과 Karahanna(2000)가 제안한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 가운데 시간적 해리 (temporal dissociation), 집중적인 몰입(focused immersion), 고양된 즐거움(heightened enjoyment), 호기심(curiosity) 등을 측정하고 이를 하위 차원으로 하는 복합적 구성 개념으로 처리하였다. 사용1과 사용2 모두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 모두를

<표 1> 측정항목

변수	설문항목
습관	내게 있어 페이스북 사용은 자동화 되어 있다.
	의식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분이 이상하다.
	보통 아무런 생각없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사용은 나의 일상 생활 중 하나에 속한다.
	나도 모르게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적 해리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종종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가 있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시간이 빨리 흘러 간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종종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페이스북에 쓴다.
집중된 몰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동안 나는 다른 방해물 차단할 수 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동안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는 내 주의를 쉽게 분산되지 않는다.
고양된 즐거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은 즐겁다.
	페이스북을 사용은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제공한다.
	페이스북 사용을 즐긴다.
호기심	페이스북 사용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페이스북 사용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페이스북 사용은 나의 상상력을 고양시킨다.
사용빈도	지난 2 주 동안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였다.
	지난 2 주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였다.

측정하였다(이응규, 2011; 2012; Limayem et al, 2007).

## 2. 분석 도구

자료의 분석은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하였다. 비록 최근 들어 PLS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PLS는 정보시스템 이론

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분석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PLS는 조형적 지표(formative indicators)를 채택한 연구 모형에서 매우 적절한 도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응규, 2011; 2012; Limayem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사용1과 사용2를 사용횟수와 사용시간에 의해 측정한다.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사용 시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두 척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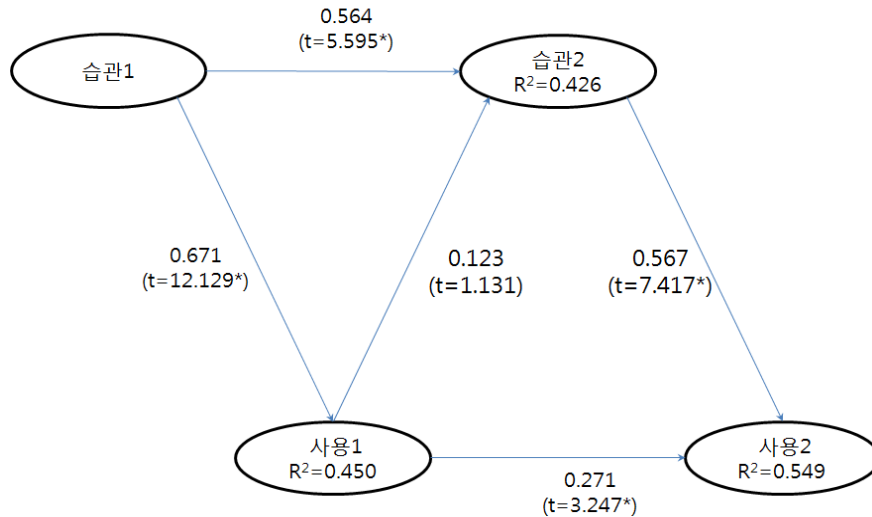
다. 항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척도는 반영적 지표(reflective indicators)이지만 조형적 지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분석적 차원에서 본다면 반영적 지표가 변수와 측정항목 간의 인과관계 방향이 '변수->척도'인데 비해 조형적 지표는 '척도->변수'다(Jarvis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사용빈도와 사용시간과 같은 조형적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PLS를 분석 접근방법으로 채택하였다.

## V. 자료분석

실험에 참여한 178명의 참여자 가운데 실제 세 번에 걸친 조사에서 추적이 가능한 152명(남: 90명, 여: 6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록 1과 부록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항목에 대

한 요인분석과 변수들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록1에서 보듯이 모든 측정항목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측정항목의 값이 그렇지 않은 값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부록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신뢰도는 최소 0.903을 보여 주어 임계치 0.8을 넘어서고 있고 변수들의 상관관계 역시 모두 AVE의 제곱근에 비해 작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측정도구는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조절 효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가설3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은 PLS에 의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모든 사용1의 R2값은 0.450, 습관2는



\*: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지지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0.426, 그리고 사용2는 0.549의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Falk와 Miller(1992)가 제시한 임계치 0.1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습관1과 사용1 및 습관2와 사용2의 관계는 각각 0.671( $t=12.129$ ), 0.567 ( $t=7.417$ )을 보임으로써 가설1은 항상 통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사용1과 사용2의 경로계수 즉, 과거 사용 빈도와 현재 사용 빈도의 관계는 0.271( $t=3.247$ )을 보임으로써 가설3 역시 통계적 지지를 받았다. 가설4, 즉, 과거 습관과 현재 습관과의 관계(습관1-습관2) 역시 0.564의 경로계수 값( $t=5.595$ )을 보임으로써 통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사용1과 습관2의 관계는 0.123( $t=1.131$ )을 보임으로써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과거 습관의 형성은 가설4에서 보듯 과거 습관의 영향이 과거 사용 빈도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 역시 지지를 받았다.

가설2의 경우에는 조절된 다중회귀(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를 따랐다(Carte and Russell, 2003). 특히 첫 번째 시점에서 습관1과 사용1의 관계에도 적용하였고 습관2와 사용2의 관계에서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시점의 경우 습관과 인지적 몰입을 선행변수로 했을 때의 설명력( $R_a^2$ )이 0.531이고 습관과 인지적 몰입의 곱의 측정항목(product scale)을 선행변수로 더했을 때의 설명력( $R_m^2$ )이 0.549을

보였다. 두 변수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F 값은 6.865를 보였다. 한편 두 번째 시점의 경우  $R_a^2$ 는 0.526  $R_m^2$ 는 0.538을 보였고 F값은 4.468을 보였다. 따라서 두 시점 모두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곱의 측정항목이 있음을 보임으로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3 역시 통계적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습관-사용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의 조절효과 분석 요약

	1차 시점	2차 시점
$R_m^2$	0.549	0.538
$R_a^2$	0.531	0.526
$\Delta R^2(=R_m^2 - R_a^2)$	0.018	0.012
$df_m$	3	
$df_a$	2	
$N$	175	
$F_{값}$	6.865*	4.468*

$$F_{값} = F_{(df_m - df_a, N - df_m - 1)} = \frac{\Delta R^2 / (df_m - df_a)}{(1 - R_m^2) / (N - df_m - 1)}$$

$R_m^2$ : 습관과 인지적 몰입 그리고 습관과 인지적 몰입의 곱을 선행변수로 했을 때 사용의 설명력

$R_a^2$ : 습관과 인지적 몰입을 선행변수로 했을 때 사용의 설명력

$df_m$ : 습관과 인지적 몰입 그리고 습관과 인지적 몰입의 곱을 선행변수로 하고 사용을 종속변수로 할 때 자유도

$df_a$ : 습관과 인지적 몰입을 선행변수로 하고 사용을 종속변수로 할 때 자유도

$N$ : 표본 수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 지지

이상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3>와 같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검정방법	검정결과	채택여부
가설1	습관1-사용1, 습관2-사용2 경로분석	두 경로 모두 통계적 지지	채택
가설2	1,2차시점 습관-사용 관계의 인지적몰입 조절효과 분석	표4 참조	채택
가설3	사용1-사용2 경로 분석	통계적 지지	채택
가설4	습관1-습관2 경로 분석	통계적 지지	채택
가설5	사용1-습관2, 습관1-습관2 경로분석	사용1-습관2 경로는 통계적 지지 받지 못함. 습관1-습관2 통계적 지지 (가설4).	채택

## Ⅶ. 결 론

### 1.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적인 의도를 매개하지 않는 자동사용에 있어 습관의 강도, 과거사용의 빈도 그리고 인지적 몰입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의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문1: 인지적 몰입은 습관을 고려할 경우 자동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연구의문2: 과거사용 빈도는 습관에 항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두 연구의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인지적 몰입, 습관, 사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지적 몰입은 습관과 사용 빈도에 대한 조절변수로 설정하였고 사용 빈도와 습관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장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은 페이스북 사용자 1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PLS에 의해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두 가지의 연구의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설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몰입은 습관과 자동사용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 둘째, 가설4와 가설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사용 빈도가 항상 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 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연구의문이나 가설로 제시되지는 않았

었지만 사용1과 습관2의 유의성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 습관의 이론에 의하면 과거 사용 빈도는 습관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1과 습관2는 당연히 유의적 관계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사용1과 습관2의 관계는 2주 동안의 사용 빈도와 습관의 관계를 의미한다. 2주동안의 사용빈도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 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지적 몰입은 습관이 자동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부적 단서로 작동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 인지적 몰입은 일종의 최적 경험이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지적 몰입을 Ortiz de Guinea와 Markus(2009)의 견해에 따라 자동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 경험(emotional experiences) 가운데 하나로 보고 사용 의도 뿐 아니라 사용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이웅규,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인지적 몰입과 습관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사용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인지적 몰입의 정도가 크면 습관과 사용빈도와의 관계가 더 높다는 것을 이론적 가설로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였다. 가령,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험했던 즐거움이 크

면 클수록 페이스북에 대한 습관적인 사용이 더 잦아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동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사용빈도가 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적으로 정보기술 사용을 포함한 어떤 행위에 대한 습관의 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행이다(Bagozzi, 1981; Ouellette and Wood, 1998; Triandis, 198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적 사용이 반드시 사용 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습관의 형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반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존 습관이 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습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 빈도를 습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기존 연구(이용규, 2013; Verplanken, 2006; Verplanken and Orbell, 2003)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3. 실무적 시사점

SNS 제공업자는 물론이고 회원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지적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깊이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회는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재미있는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의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이미 온라인 비즈니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예; 윤상진, 2012; Eisenmann 등, 2006; O'reilly, 2004).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가령, 토론 그룹이나 커뮤니티 그룹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자신의 서비스 사이트 즉,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의 사용 빈도가 습관적 사용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기존의 사용 습관이 습관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맺기'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수 있다는 기존의 고객관계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이론과도 일치한다(이용규 외, 2005). 또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기존 현상(status quo)을 계속 고수하려는 경향 즉, 타성(inertia)이 정보기술 사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Polites and Karahanna, 2012).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시스템 사용에 익숙한 기존 사용자들의 타성에 상처되는 활동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이용규, 2012). 가령, 기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의도와 인지적 몰입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정보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 단계뿐 아니라 지속적 사용 단계에서도 사용의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웅규, 2011, 2012; Kim, 2009; Kim and Malhotra, 2005; Limayem et al, 2007; Oritz de Guinea와 Markus, 2009).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몰입과 사용의도는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이웅규,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도를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둘째, 타당성 검증에 있어 표본의 편향성(bias)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표본 크기가 175로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정도의 표본 크기만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상당수 있었지만 통계적 타당성에 대한 무결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은 아니다. 표본의 대상이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도 본 연구의 실증적 검증이 갖는 한계다. 역시 상당수의 연구가 특정 지역의 특정 세대에 국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편향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개월에 걸친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은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사용 빈도와 습관의 형성이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이나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찰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험집단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할 경우 매우 중요한 시도가 되리라 본다.

둘째, 좀 더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할 수 있다. 우선 연령이나 성별 또는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변수를 통제 변수로 도입할 경우 다양한 분석을 할 경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이외에도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이나 감정적 애착도(emotional attachment)와 같이 시스템 사용의 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습관 형성에 있어 과거 사용 빈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사용과 습관과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는 습관을 형성하기에 충분치 못한 사용빈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용 빈도나 사용 기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은 습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윤상진(201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한빛비즈, 서울.  
이웅규 (2011),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에서

- 경험의 역할에 대한 분석“,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제21권, 제4호, pp.45-62.
- 이용규 (2012), “인지적 몰입이 정보기술의 자동 사용에 미치는 직접효과: 근접효과와 원위효과”, *정보시스템연구*, 제21권, 제2호, 제2호, pp.115-133.
- 이용규, 이동만, 광기영 (2005), *인터넷과 경영*, 삼우사, 서울.
- 이용규, 권정일(2012), “기술수용모형과 전환비용의 관계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7권, 제1호, pp. 89-104.
- 이용규, 김효정(2011), “사용 습관이 새로운 정보 기술 수용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 전문성과 고착현상”, *지식경영연구*, 제12권, 제5호, pp.11-23.
- 이용규, 김효정(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bits of a Currently Used System and the Acceptance of a New System”, *정보시스템연구*, 제22권, 제1호, pp.143-161.
- Aarts, H., Paulussen, T. and Schaalma, H., “Physical Exercise Habit: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Formation of Habitual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12, 1997, pp.363-374.
- Agarwal, R. and Karahanna, E.,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erly*, 24, 2000, pp.665-694.
- Ajzen, I., “Residual Effects of Past on Later Behavior: Habituation and Reasoned Action Perspec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6, 2002, pp.107-122.
- Bagozzi, R. P.(1981),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1, pp.607-627.
- Barnes, S. J.(2011), "Understanding Use Continuance in Virtual Worlds: Empirical Test of a Research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Vol.48, 2011, pp.313-319
- Bhattacharjee, A. and Premkumar, G., "Understanding Changes in Belief and Attitude toward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heoretical Model and Longitudinal Test", *MIS Quarterly*, Vol.28, 2004, pp.229-254
- Carte, T. A. and Russell, C. J., “In Pursuit of Moderation: Nine Common Errors and Their Solutions”, *MIS Quarterly*, Vol.27, 2003, pp.479-501.
- Csikszenti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90.
- Davis, F. D., Bagozzi, R. P., and Warshaw, P. R.,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35, 1989, pp.982-1003
- Eisenmann, T., Parker, G., and Van Alstyne, M. W., “Strategies for Two-Sided Markets”,

-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2006.
- Falk, R. F. and Miller, N. B., *A Primer for Soft Modeling*, Akron Ohio: University of Akron Press, 1992.
- Fishbein, M. and Ajzen, I., *Belief,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NY: Psychology Press, 2010.
- Gefen, D., Karahanna, E., and Straub, D. W., "Inexperience and Experience with Online Stores: The Importance of TAM and Trust",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50, 2003, pp.307-321.
- Goel, L., N. Johnson, A., Junglas, I., and Ives, B., "From Space to Place: Predicting Users' Intentions to Return to Virtual Worlds", *MIS Quarterly*, Vol.35, 2011, pp.749-771.
- Guo, Y. and S. Barnes, "Purchase Behavior in Virtual World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Second Life," *Information & Management*, Vol.48, 2011, pp.303-312.
- Jarvis, C. B., S. B. Mackenzie, and P. M. Podsakoff, "A Critical Review of Constructs Indicators and Measurement Model Misspecification in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0, 2003, pp.199-218.
- Karahanna, E., Straub, D. W., and Chervany, N. L.,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across Time: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Beliefs", *MIS Quarterly*, Vol.23, 1999, pp.183-213.
- Kim, S. S., "The Integrative Framework of Technology Use: an Extension and Test", *MIS Quarterly*, Vol.33, 2009, pp.513-537.
- Kim, H-W, and Kanakanhalli, A. , "Investigating User Resistance to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A Status Quo Bias Perspective", *MIS Quarterly*, Vol.33, 2009, pp.567-582.
- Kim, S. S. and Malhotra, N. K., "A Longitudinal Model of Continued IS Use: an Integrative View of Four Mechanisms underlying Postadoption Phenomena", *Management Science*, Vol.51, 2005, pp.741-755.
- Kim, S. S., Malhotra, N. K., and Narasimhan, S., "Two Competing Perspectives on Automatic Us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mparis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6, 2005, pp.418-432.
- Lankton, N. K., Wilson, E. V., and Mao, E., "Antecedents and Determinants of Information Technology Habit", *Information & Management*, Vol.47, 2010, pp.300-307.
- Limayem, M. and Hirt, S. G., "Force of Habit and Information Systems Usage: Theory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4, 2003, pp.65-97.
- Limayem, M., Hirt, S. G., and Cheung, C. M. K., "How Habit Limits th Predictive Power

- of Intention: The Case of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MIS Quarterly*, Vol.31, 2007, pp.705-737
- Lin, H-F., "Examination of Cognitive Absorption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a Virtual Community",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28, 2009, pp.421-431.
- Lin, H. and Wang, Y., "An Examination of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Loyalty in Mobile Commerce Context", *Information & Management*, Vol.43, 2006, pp.271-282.
- Magni, M., Taylor, M. S., and Venkatesh, V., "'To-Play or Not to Play': A Cross-Temporal Investigation using Hedonic and Instrumental Perspectives to Explain User Intention to Explore a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68, 2010, pp.572-588.
- Myers, D. G., *Psychology* (eighth edition), Worth Publishers, New York, NY., 2007.
- O'Reilly, T., "What is Web 2.0: Design Pattern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Next Generation of Software", MPRA(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Paper No. 4578, March, 2007.
- Ortiz de Guinea, A. and Markus, M. L., "Why Break the Habit of a Lifetime? Rethinking the Roles of Intention, Habit, and Emotion in Continuing Information Technology Use", *MIS Quarterly*, Vol.33, 2009, pp.433-444.
- Ouellette, J. and W. Wood,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Vol.124, 1998, pp.54-74.
- Pee, L. G., Woon, I. M. Y., and Kankanhalli, A., "Explaining Non-Work-Related Computing in the Workplace: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odels", *Information & Management*, Vol.45, 2008, pp.120-130.
- Polites, G. L., and Karahanna, E., "Shackled to the Status Quo: The Inhibiting Effects of Incumbent System Habit, Switching Costs, and Inertia on New System Acceptance", *MIS Quarterly*, Vol.36, 2012, pp.21-42.
- Ray, S., Kim, S. S., and Morris, J. G., "Online Users' Switching Costs: Their Nature and Form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3, 2012, pp.197-213.
- Roca, J. C., C-M. Chiu, and F. J. Martinez, "Understanding e-Learning Continuance Intention: An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64, 2006, pp.683-696.
- Saade, R. and B, Bahli, "The Impact of Cognitive Absorption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 On-line Learning: An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Vol.42, 2005, pp.317-327.



- Shapiro, C. and Varian, H. R. , *Information Rul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1999.
- Taylor, S. and Todd, P. A. , "Assessing IT Usage: the Role of Prior Experience", *MIS Quarterly*, Vol.19, 1995, pp.561-570.
- Thompson, R. L., Higgins, C. A., and Howell, J. M., "Influence of Experience on Personal Computer Utilization: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11, 1994, pp.167-187.
- Triandis, H. C.,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9: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edited by M. M. Pag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NE, 1980, pp.195-259.
- Venkatesh, V., M. G. Morris, G. B. Davis, and F. D. Davis,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Vol.27, 2003, pp.425-478.
- Venkatesh, V. and Davis, F. D.,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46, 2000, pp.186-204.
- Venkatesh, V., Morris, M. G., and Ackerman, P. L., "A Longitudinal Field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Individual Technology Adoption Decision- Making Process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83, 2000, pp.33-60.
- Verplanken, B., "Beyond Frequency: Habit as Mental Constru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5, 2006, pp.639-656.
- Verplanken, B. and S. Orbell, "Reflection on Past Behavior: A Self-Report Index of Habit Strengt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3, 2003, pp.1313-1330.
- Wakefield, R. L. and Whitten, D., "Mobile Computing: a User Study on Hedonic/ Utilitarian Mobile Device Usag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5, 2006, pp.292-300.
- Wood, W., Quinn, J. M., and Kashy, D. A. (2002), "Habits in Everyday Life: Thought, Emotion, an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3, 2002, pp.1281-1297.
- Zhang, P., Li, N., and Sun, H., "Affective Quality and Cognitive Absorption: Extending Technology Acceptan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39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06, pp.1-10.

### 이웅규(Lee, Woong-Kyu)



저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KT에서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 중이다. 한국정보시스템 학회 회장 및 편집위원장 그리고 한국경영정보학회 발간지인 ISR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보기술 수용, 습관적 사용, 전환비용 등 사용자 행태에 관한 다양한 측면이 주요 연구관심 분야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의 정보기술 수용의 질적 접근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Computers in Human Behavior, Behavior & Information Technology,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학술지에서 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부록 1> 확인적 요인분석

	CU1	FI1	HE1	TD1	CU2	FI2	HE2	TD2	HA1	HA2
CU11	0.867	0.256	0.362	0.144	0.396	0.274	0.434	0.280	0.355	0.323
CU12	0.896	0.295	0.591	0.189	0.437	0.303	0.486	0.270	0.400	0.321
CU13	0.783	0.234	0.392	0.197	0.399	0.342	0.312	0.157	0.410	0.344
FI11	0.117	0.762	0.202	0.295	0.253	0.377	0.213	0.305	0.320	0.245
FI12	0.344	0.847	0.458	0.369	0.300	0.356	0.361	0.312	0.395	0.304
FI13	0.259	0.794	0.440	0.319	0.180	0.241	0.239	0.079	0.391	0.204
HE11	0.474	0.368	0.873	0.433	0.306	0.140	0.350	0.151	0.396	0.235
HE12	0.471	0.449	0.853	0.414	0.257	0.183	0.342	0.132	0.378	0.282
HE13	0.432	0.396	0.849	0.306	0.246	0.202	0.407	0.104	0.484	0.260
TD11	0.052	0.348	0.317	0.825	0.089	0.157	0.221	0.330	0.285	0.218
TD12	0.152	0.435	0.379	0.816	0.153	0.181	0.213	0.347	0.278	0.218
TD13	0.167	0.457	0.406	0.883	0.128	0.212	0.210	0.346	0.280	0.234
TD14	0.284	0.289	0.407	0.826	0.182	0.245	0.241	0.359	0.360	0.262
TD15	0.185	0.239	0.334	0.822	0.107	0.215	0.273	0.319	0.392	0.252
CU21	0.347	0.224	0.237	0.199	0.885	0.548	0.485	0.411	0.307	0.514
CU22	0.394	0.309	0.337	0.098	0.906	0.561	0.584	0.415	0.353	0.520
CU23	0.510	0.258	0.243	0.123	0.825	0.500	0.529	0.415	0.337	0.529
FI21	0.177	0.232	0.082	0.153	0.497	0.800	0.429	0.408	0.205	0.445
FI22	0.426	0.366	0.248	0.194	0.503	0.869	0.572	0.509	0.353	0.505
FI23	0.288	0.385	0.174	0.255	0.532	0.828	0.521	0.557	0.442	0.558
HE21	0.429	0.326	0.350	0.181	0.515	0.543	0.865	0.550	0.316	0.484
HE22	0.419	0.318	0.383	0.302	0.566	0.553	0.931	0.544	0.375	0.544
HE23	0.466	0.291	0.429	0.273	0.580	0.571	0.919	0.555	0.478	0.615
TD21	0.319	0.212	0.138	0.311	0.426	0.533	0.609	0.889	0.329	0.505
TD22	0.244	0.307	0.163	0.374	0.430	0.548	0.474	0.890	0.444	0.579
TD23	0.245	0.237	0.128	0.403	0.400	0.488	0.534	0.896	0.409	0.557
TD24	0.159	0.229	0.085	0.334	0.412	0.520	0.515	0.826	0.280	0.482
TD25	0.090	0.194	0.122	0.152	0.173	0.120	0.212	0.283	-0.038	-0.001
HA12	0.478	0.485	0.566	0.350	0.298	0.342	0.457	0.331	0.827	0.513
HA13	0.279	0.353	0.358	0.342	0.233	0.317	0.331	0.352	0.809	0.572
HA14	0.322	0.305	0.329	0.276	0.335	0.291	0.305	0.331	0.756	0.449
HA15	0.288	0.271	0.296	0.407	0.214	0.344	0.297	0.316	0.711	0.451
HA16	0.251	0.178	0.204	0.230	0.251	0.212	0.275	0.327	0.675	0.453
HA17	0.397	0.464	0.494	0.251	0.321	0.403	0.408	0.315	0.846	0.523
HA18	0.414	0.387	0.334	0.319	0.349	0.304	0.255	0.349	0.808	0.537
HA19	0.334	0.298	0.349	0.246	0.371	0.295	0.326	0.326	0.756	0.494
HA22	0.320	0.215	0.348	0.145	0.498	0.503	0.544	0.467	0.460	0.800
HA23	0.346	0.246	0.331	0.285	0.500	0.531	0.573	0.554	0.523	0.846
HA24	0.269	0.210	0.078	0.121	0.534	0.464	0.407	0.419	0.450	0.796
HA25	0.240	0.254	0.151	0.361	0.373	0.443	0.424	0.522	0.531	0.790
HA26	0.289	0.278	0.198	0.269	0.495	0.514	0.418	0.489	0.518	0.824
HA27	0.306	0.238	0.303	0.160	0.467	0.513	0.557	0.462	0.550	0.851
HA28	0.339	0.262	0.220	0.229	0.476	0.496	0.530	0.547	0.577	0.823
HA29	0.402	0.332	0.304	0.299	0.552	0.492	0.494	0.496	0.573	0.784

CU: 호기심, FI: 집중된 몰두, HE: 고양된 즐거움, TD: 시간적 해리, HA: 습관

<부록 2>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및 상관계수

	복합신뢰도	CU1	FI1	HE1	TD1	CU2	FI2	HE2	TD2	HA1	HA2
CU1	0.886	0.850	-	-	-	-	-	-	-	-	-
FI1	0.905	0.485	0.873	-	-	-	-	-	-	-	-
HE1	0.844	0.309	0.303	0.802	-	-	-	-	-	-	-
TD1	0.872	0.362	0.615	0.400	0.833	-	-	-	-	-	-
CU2	0.894	0.533	0.312	0.470	0.206	0.858	-	-	-	-	-
FI2	0.932	0.485	0.613	0.342	0.614	0.431	0.906	-	-	-	-
HE2	0.922	0.200	0.164	0.439	0.235	0.443	0.260	0.865	-	-	-
TD2	0.929	0.277	0.476	0.283	0.596	0.148	0.606	0.404	0.875	-	-
HA1	0.923	0.460	0.383	0.464	0.411	0.496	0.437	0.354	0.422	0.775	-
HA2	0.940	0.388	0.599	0.313	0.608	0.302	0.609	0.274	0.609	0.643	0.814

CU: 호기심, FI: 집중된 몰두, HE: 고양된 즐거움, TD: 시간적 해리, HA: 습관

대각선 음영부분: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제곱근

<Abstract>

## **The Effect of Cognitive Absorption, Past Usage and Habit on Automatic Use**

**- focus on the users of Facebook**

Lee, Woong-Kyu

Recently, theoretical interests in automatic uses, which can be activated without conscious intention, have been increase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utomatic uses are known to be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habit, the frequency of past uses, and emotional experiences such as cognitive absorption. Concerned on the influences of the above three factors on automatic uses,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ich effect of cognitive absorption on automatic considering habit?’ and ‘Does the frequency of past uses always influence habit?’.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suggested a research model which would explain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absorption, habit, and uses. Especially, cognitive absorption is formed as a moderating variab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use and habit, and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re longitudinally expanded. The suggested research model was empirically tested by surveying 175 ‘Facebook’ users and analysed by partial least square (PLS), which showed the suggested hypotheses are significant. This results answered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ed: First, cognitive absorp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habit and automatic use. Second, the frequency of past uses would not always influence the formulation of habit rather but may be influenced by habit.

**Key Words** : Automatic Use, Cognitive Absorption, Habit, Frequency of Past Use

\* 이 논문은 2013년 12월 3일 접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14년 3월 23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